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수행은 왜 해야 하나까?”
 161명 가운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물러서가 아니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화두. 끊임 없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할 전부임을 사미(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13일 오후 2시 대구 동화사 설립전. 2002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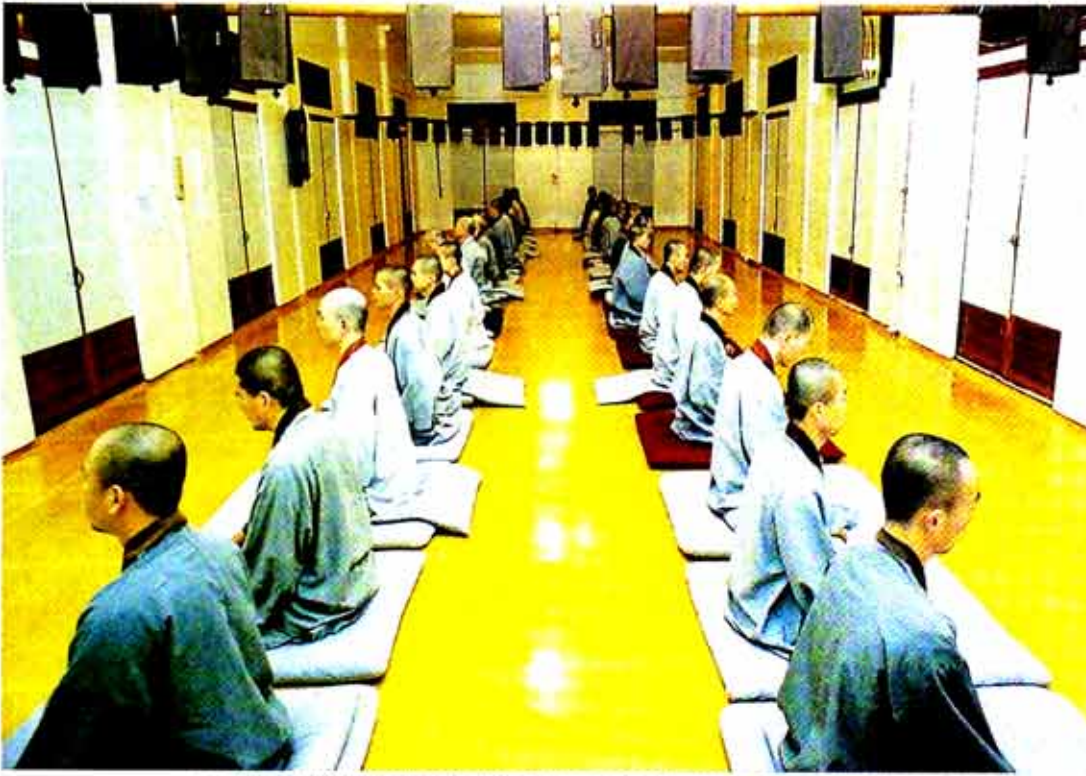
조계종 기초선원 '가을교과안거'

기초선원 가을 교과안거(敎科安거)는 그렇게 평평한 긴장감으로 일주일째를 맞고 있었다. 질문을 던졌던 기초선원장 지환스님은 “괴로움을 통찰하면 통찰할수록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사미(尼)들을 독려했다.

조계종 기초선원의 교과안거는 봄 가을로 일년에 두 번 열린다. 전국 80여 제방 선원에서 참선수행을 하고 있는 사미(尼)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한 달 동안 수행에 필요한 경전과 논서를 공부하고 참선수행자로서 지녀야 할 각종 예절과 의식을 익히는 기본교육과정이다. 이번 교과안거에서는 특강(지환스님)을 비롯해 기신론(지오스님), 선교결(원웅스님), 화엄합요(수진스님), 전심법요(홍광스님), 선관학(해국스님) 등의 교과과목 강의가 좌선과 함께 진행됐다.

조계종단의 비구(尼)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승가대나 동국대, 강원 또는 선원에서 4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모인 사미(尼)들은 경전공부가 아닌 참선수행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각각의 선원에서 동·하안거 8안거를 이수하고, 이번처럼 열리는 교과안거를 6안거 이수해야만 비구(尼)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오직 참선에만 몰두해 온 사미(尼)들에게 교과안거는 평상시 접하지 않던 책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두를 놓지 않는다. 곁으면서도, 공양을 하면서도 정신은 오직 한 곳에 집중해 있고,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참선에 들어간 사미(尼)들. 조계종 기초선원 교과안거 교육의 반은 참선수행으로 채워진다.



지오스님(해인사강주)의 '대승기신론' 강의를 듣고 있는 사미(尼)들



기초선원의 청규는 엄격하다. 강의장에 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안행(安行)'을 해야 한다.

경전·수행자예절·의식 배워 강의장 올때 반드시 안행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의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이들은 온종일 화두 하나에 자신을 내던진다.

다음날인 14일 새벽 3시, 하루의 첫 시작 역시 좌선과 입선으로 시작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팔공산을 휘감았다. 어떤 사미(尼)들은 오후불식을 하며 버티기도 하고, 어떤 사미(尼)들은 잠자리에서 화두를 들었다가 끝내 놓지 못하고 새벽을 맞기도 한다. 그러나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과안거에 임교하기 전 이들 사미(尼)들

10월5일 회향... 年두차례 교과안거 6안거 끝내야 비구(尼)계 수계자격

은 각 선원에서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정진을 해왔다. 혹독한 수행을 자처하며 적게 먹고 적게 자다보니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선배 수좌들이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충고해도 듣지 않는다. 발심에 불이 붙어 오로지 수행에 몰두하는 사미(尼)들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이 품고 있는 화두뿐이다.

아침공양과 도량 청소 후 주어진 참사의 여유시간. 대문사에서 왔다는 법강 사미와 어렵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교과안거에 임교했다는 법강 사미는 2년간 해인사 강원(院)에 다니다가 발심을 해 선원에 오게 됐다고 했다. “무엇이 가장 어려우냐고 묻자, ‘오죽 했으면 선원에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생사해탈이 그토록 간절하지 않았다면 산문에 들어설 이유도, 선원을 평생 수행처로 삼을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사미(尼)들이 안행(安行) - 기러기가 대오를 맞춰 날아가듯 질서 있게 가는 것으로 선원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사찰이 결된 문제이므로 종단과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이 승가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선원은 자질을 갖춘 소수정예를 철저히 수행시켜 지혜와 자비의 원력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란을 피워서도 안 되고, 온역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동화사 기초선원이 조계종 기초선원 중심도량으로 지정된 것은 1997년이다. 제방 선원의 사미(尼)들이 이론과 실제를 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 곳에서는 1년에 두 차례 교과안거가 열린다.

이 땅에 선원이 생긴 것은 중국의 선이 전래되고 각 사찰에서 수행종도가 자리 잡으면 서부터다. 그리고 신라시대 구산선문(九山禪門)이 개창되면서부터 선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스스로 마음을 밝혀 부처가 되겠다는 선정 수행의 오랜 역사가 지금 선원의 뿌리인 것이다.

강의가 끝난 뒤 이어진 사시 예불. 봉사부에 모인 사미(尼)들이 대웅전을 바라보며 석가모니불을 영송한다. 예불이 끝나면 다시 강의와 참선시간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며 10월 5일 교과안거를 회향하게 된다. 하지만 교과안거가 끝났다고 해서 힘든 것이 생기지는 않는다. 아니, 사미(尼)들 스스로 ‘힘’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곧바로 3·7 용맹정진(21일간)에 들



도량청소를 하고 있는 사미(尼)들.

오후 8시 금당선원에서는 38명의 사미들이 일제히 좌선에 들어갔다. 금당선원 옆 선열당과 설법전에서도 76명의 사미들이 죽비소리에 맞춰 좌선상에 빠져들었다. 47명의 사미(尼)들이 좌선에 들어간 설법전 인근의 부도암과 양진암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이런 선원의 모습이 취재진에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좀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꺼려하는 선원의 수행자들. 이들에



하는 방안을 강구해 놓았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기초선원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사찰이 결된 문제이므로 종단과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행자 자질 확립에 심혈”

기초선원장 지환스님

“발심(發心)가 수행자가 이 시대의 선지식, 본분(本分)자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취지로 기초선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원의 사미(尼)들이 수행자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선원의 설립목적은 실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초선원장 지환스님은 선원 사미(尼)들의 발심이 식지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초선원은 아직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설이나 수행,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환스님은 얼마 전부터 선원의 관계자들이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는데 뜻을 모

1~2년차 수행자 내년부터 1년 결사 추진

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선원 사미(尼) 1년차의 경우 한 곳에 모여 1년간 결사를 하고, 2년차 역시 이에 준하는 수행과 교육을 하며, 3~4년차는 훌륭한 선지식이 있는 선원에서 안거를 하도록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天地)가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삼연(三連) 동양철학, 운기(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三正) 시대(三正)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증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삼정(三正)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三合)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안락체를 가지게 된다 하여 삼정(三正)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三正)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苦地)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희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열, 뇌기능강화
- 얼굴에 뾰루지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腎虛)로 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배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